

# < Café on Tunnel >

글. 최우석

-제목

Café on tunnel

-기획 의도

공간 속에 이야기가 담겨있고 이야기 속에 공감이 담겨있는 이야기

-로그라인

카페에서 일하는 이랑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찬영이 궁금하다

-주도적 아이디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이야기도 하나의 이야기로 관통될 수 있다. 한정된 공간안에서 펼쳐지는 대화들은 어쩌면 카페에서 들리는 흔한 이야기 일 수도 있고,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거나 책에서 읽은 적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플롯

안티 플롯

-가치

캐릭터의 대화는 둘만의 서사 중 일부분들을 때어낸 이야기여야 한다.

또한 그 이야기들의 두 사람의 전사를 관객이 상상 할 수 있어야 한다.

4번의 나뉜진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대화가 발단- 전개 -위기,절정-결말의 성격을 띤다.

-캐릭터 설정

예원 (29살. 카페 알바생) : 멋진 커리어우먼을 꿈꿨지만 ‘첫 취업’에 실패하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일을 한다. 도전과 실패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다음 면접 전까지 ‘도와주기만’ 한다던 부모님의 카페일에 눌러 앉은지 4년 쯤이다. 그런 그녀에게 신경쓰이는 남자가 생겼다.

찬영 (21살. 미대생) : 미대 2학년인 찬영. 우연히 들렸던 카페에서 예원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꿈같은 여우. 카페에 매일 가며 그녀의 일상에 조금씩 녹아든다.

민혁 (32살. 신입사원) : 전문대를 졸업 후, 4년간의 백수생활을 청산하고 겨우겨우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 직전 헤어진 은영을 아직도 그리워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 첫 월급이 나온 날. 민혁은 그녀를 만날 핑계가 생각 났다.

은영 (34살. 디자이너) : 대학교 졸업 후 대기업의 웹디자이너로 취직했다. 특강에서 만났던 민혁과 2년을 만났다. 회사일이 바빠지면서 민혁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민혁을 사랑했지만, 자격지심이 커져버린 민혁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헤어진지 두 달 후. 꼭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민혁의 전화를 받는다.

덕길 (28살. 단편영화 감독) : 단편영화의 감독. 배우미팅을 하는 날이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배우가 조금 이상해보인다.

민정 (24살. 배우 지망생) : 배우지망생. 졸업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가 있어도 이번 영화를 찍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간다.

시놉시스

예원-찬영

: 오전 10시. 예원이 카페문을 여는 시간. 오전 10시 30분 찬영이 카페에 도착하는 시간. 정확히 예원이 출근하고 30분인 10시 30분에 오늘로 2주째 오고 있는 남자. 그리고 항상 예원이 마시는 음료와 같은 걸 마시고 굳이 예원이 앉는 테이블에 앉는다.

은영-민혁

: 민혁의 전화를 받고 약속한 카페 근처에서 민혁을 기다리는 은영. 헤어진지 두달 만에 연락와서 할말이 있다는 민혁. 불안한 마음 반, 왠지 모를 설렘반으로 그를 기다리지만. 그가 건넨 말과 행동은 예상도 못했던 것이다.

덕길-민정

: 카페에서 하루조일 배우미팅을 하고 혼자서 시나리오를 수정한 덕길. 마지막 배우와 미팅을 한다. 말도안되는 모자를 쓰고 나와 태연하게 말을 하는 민정을 보고 덕길은 묘한 매력을 느낀다.